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91년도 임직자 후보 제자훈련

10월 8·9일, 11·12일, 25·26일에

현 직분자 중 미필자도 신청 가능

지난 8월 17일, 18일에 면접과, 9월 6, 7일에 교육을 마친 91년도 서리집사 후보들에 대한 제자훈련이 다음달 8일과 9일, 11일과 12일, 25일과 26일에 충현기도원에서 충현제자훈련원의 주관으로 실시된다.

“천국일꾼이 되자”라는 주제 아래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내년도 신임 임직자 후보뿐 아니라, 지난 3월과 5월 사이에 있었던 '90제자훈련을 받지 않은 현 직분자도 참가해야 한다.

교회는 차년도 직분자 임명을

가능한 한 이 훈련 참가자 가운데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 훈련 대상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등록하여 이번 훈련에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접수는 현재 소석관 102호에서 받고 있다.

제2목양관
신축기로

우리 교회 교역자들로 하여금 더욱 편리한 시설과 교회 가까이 거주하게 하기 위한 방침에 따라 양지연립을 매각하고 제2목양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10일 그 기공예배를 드린다.

제2목양관은 강남구 역삼동 663-27에 위치한 114.72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199.11평의 4층으로 건축될 예정이며, 입주세대 수는 10세대이다.

이 목양관의 완공 예정일은 내년 5월인데, 성도들은 순조로운 공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성경연구원
다음주에 휴강

성경연구원은 지난 9월 11일 내린 폭우로 휴강되었던 교사양성부의 화요일 강의 “영적 성장의 비결” (김은태 목사)을 10월 7일에 보충한다.

한편 추석 연휴가 있는 다음 주 간에는 주간 성경공부반과 아담반이 휴강을 한다.

장년2부 오늘
성경퀴즈대회

장년2부는 오늘 오후 1시에 소석관 414호에서 성경퀴즈대회를 개최한다.

약 170여 명의 성도들이 참가할 이번 성경퀴즈대회는 히브리서서 전체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출제된다.

아시아복음주의협의회·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감사패 증정
25일 AMC보고회 때

지난 8월 27일부터 4박 5일 동안 개최되었던 '90아시아선교대회(AMC) 보고회가 9월 25일 저녁 7시 우리 교회에서 열렸다.

김준곤 목사를 비롯한 AMC준비위원들과 각 교단 총회의 대표, 기자, 우리 교회 교역자, 장로 및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윤 위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기도회를 마친 후, 이종윤 강도사는 AMC의 준비 상황, 진행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고했다.

김준곤 목사는 인사 말씀을 통해 “충현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 대회는 세계 선교의 꿈을 안고, 94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지구촌 대회를 준비한 여행 연습이었다.”고 했다.

또 아시아복음주의협의회 실행위원인 노봉린 목사도 “최선을 다해 희생적으로 봉사해준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한편 이 시간에는 AMC를 치르는데 우리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데 감사한다며 아시아복음주의협의회와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각각 우리 교회에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대학부, 청년1부, 2부
연합체육대회 개최기로

대학부, 청년1부, 청년2부는 오는 10월 9일에 친선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 친선 체육대회를 통하여 세 부서의 회원들은 심신을 단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며,

친교를 나누게 될 것이다.

알 립 니 다

주간충현 10월 7일자는 추석 연휴 관계로 부득이 휴간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P 집사님,

주일마다 집사님 내외분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드린답니다. 2년 전, 홍해작전으로 우리 교회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을 때, 집사님 가정은 넘기 어려운 질병의 홍해를 만나 온 가족이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 기도를 하셨지요. 그 후 집사님의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었고, 집사님은 부족한 저에게 기도 청원을 하시며 크게 통곡을 하시던 때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오늘의 집사님은 전보다 더 건강해지셨고 잃었던 재물도 몇 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심을 체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P 집사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이 집사님 가정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덤으로 주신 생명을 살고 있는 집사님은 그때 일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려만 주시면 주 뜻대로 살겠다면 그 기도를 반드시 성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집사님 가정에 계속 넘치시기를 오늘도 부족한 종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9. 30

이 중 윤 목사

노봉린 목사, 협동목사로 모시기로



비아 성경학교, 횃튼대학, 커버넌트 신학원에서 수학했고, 컨콜디아 루터란 신학원에서 역사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노 목사는 주로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에서 활동하면서 '90 아시아선교대회 준비에 참가하는 등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해오던 중 우리 교회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교회는 지난 26일 정기 당회에 서 노봉린 목사를 우리 교회 협동목사로 승인하였다.

노 목사는 서울대, 미국 컬럼

교역자 청빙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날로 거듭함에 따라 늘어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갈 교역자를 아래와 같이 청빙하기로 했다.

1. 청빙내역 : 부목사(약간명)
여전도사(약간명)
2. 자 격 : ㄱ. 정규대학, 총신대대학원 및 신학연구원 졸업자
ㄴ. 목사 안수 후 목회 경력 1년 이상된 자
3.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졸업증명서, 신앙간증문, 주민등록등본, 추천서
4. 제출기한 : 10월 20일(토)
5. 접 수 처 : 충현교회 기획실(선교관 403호)



성경 강해

이 중 운 목사

조상 숭배에 대한 성경적 대답(2)

2. 사후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의 어느 구절을 보면, 인간은 육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도(마6:25, 10:28) 하고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도(전 12:7; 고전 5:3, 5)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창조하시고 호흡을 불어넣었을 뿐 그 이상은 없다.

(1) 영혼의 기원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세 가지 의견이 있다.

첫째, 선재설(Pre-Existentialism)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의 육신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집어 넣어 주셨다고 하는 주장인데, 이 선재설을 믿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다.

둘째, 영혼전이설(Traducianism)

오늘날 루터파에서 주장하는 교리로서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영혼은 죽는 것과 동시에 구원에 떠돌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Immediately)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창 3:19; 행 13:36).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전 12:7; 눅 23:43).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눅 16:23, 행 1:25; 벧전 3:19).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외에 연옥이라는 곳을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설은 잘못된 신학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에도 많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산자와 죽은 자의 대화는 두절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를 보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저 세상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 형제들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말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

불신자의 영이 귀신이 된다는 주장 역시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3. 제사 제도에 대한 바른 이해

첫째, 제사 제도는 민족 고유의 풍속이 아니다.

역사를 훑어보면 제사 제도는 중국의 성리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중국에 주위라고 하는 사람이 유교철학을 만든 후에 우리가 오늘날 부르고 있는 소위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냈는데, 그 성리학이 전파된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 유교문화권에서 부모에게 특별히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설하면서 성리학을 도입한 새로운 유교형태가 우리나라의 국교가 되었다. 이 태조는 백성들에게 임금에게 충성할 것을 가르치면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내세웠다. 즉 죽은 부모에게까지 효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

고 또 떡을 떼어 던지기도 하는 것은 자연 숭배의 한 모습인 것이다.

4. 조상 숭배와 양심의 자유

고린도 교회는 제물을 가지고 고민했던 것처럼 양심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

고린도전서 10장 25, 27, 28절에 '양심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양심을 따라'이다. 이 말씀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아니한 부분은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것이다. 양심으로 모든 일을 판단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하되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야 되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덕스러워야 된다. 하나님께 덕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면 자기 양심을 가지고 양심껏 판단했다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유 행사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타인에게 유익한 것인가,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법적으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된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 자유를 누리되 양심의 규범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제사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 아니다. 그것은 유교 도덕이 만든 하나의 도덕률로서, 기복 사상에 의해 전

사후의 영혼은 천국 혹은 지옥으로

부모로부터 육신을 물려받듯이, 영혼도 인간 부모에게서 육신이 나올 때 하나님이 부모로부터 전수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것을 주장한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영혼을 창조하신 것은 기록되어 있으나 이브의 영혼을 창조하신 모습은 없고 단지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에서 뽑아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밖에는 없다(창 2:21, 22). 야곱의 자손이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라는 것(창 46:26)과, 레위는 자기 조상, 즉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하는 말(히 7:10)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육신이 부모로부터 전달되는 것처럼 영혼도 전달된다는 것이다.

셋째, 창조설(Creationism)

이것은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학설로 하나님이 직접 영혼을 하나 하나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언제 창조했느냐 하는 창조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순수하게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인간 영혼은 날 때부터 타락한 영혼으로 세상에 오는 것이다. 많은 심리학자들 혹은 교육자들이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하는 논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날 때부터 타락한 영혼을 가지고 세상에 오기 때문에 어린 아기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 사후 영혼의 상태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린다고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기 직전까지 3일 동안 그 영혼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은 난해한 구절이지만 분명한 대답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영으로 옥에 있는 이들에게 전파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옥이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하는 것은 전도했다는 말로서, 전도는 곧 심판이다. 즉 심판하러 가셨다는 것이다. 또한 이 뜻은 이미 노아 때 성령, 예수의 영이 노아의 입을 통하여 전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전도하시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예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므로 죽은 자의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 들어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고 부활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였는데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고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역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두번째 기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3) 산자와 죽은 자의 대화는 가능한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적인 대화가

하면서, 백성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윤리도덕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런 제사 제도를 한국 사람들은 마치 우리 고유의 전수된 문화요, 종교요, 신앙인양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제사 제도는 기복 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는 잘 찾아도 안보고 고기 한 근 대접도 안하다가 부모가 돌아가면 효자인척하고 아주 큰 제사를 지낸다고 온 형제를 불러놓고 난리를 치니 그것은 귀신이 살아서 자기들 집안을 저주할까봐, 복을 못받을까봐 염려하는 기복 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셋째, 조상 숭배는 자연 숭배에서부터 왔다.

무덤에 가서 조상에게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따라서 산신령님에게도 드리

수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후의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하신 자의 영원한 구원을 통하여 자기의 자비에 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과 사악하고 불복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그때부터 의로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사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 영원한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영생(永生)과 영사(永死)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야할 길은 영원한 파멸의 길, 즉 영사(永死)가 아니라, 영생(永生)의 길인 것이다. (끝)

■ 지원교회 탐방기

더 큰 사랑과 관심 갖게 한 기회

한나전도회
제6 지회



한나전도회 제6 지회에서는 90년도부터 지원하는 강원도 동해시 동성교회를 방문하기로 7월 정기월례회에서 가결하였다.

김정순 전도사님을 선두로 하여 8월 1일 새벽 5시 20분에 서울을 출발하여 주님의 인도 하에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도착해보니 서울에서 상상만 하던 교회의 모습과는 달리, 넓은 뜰에 자리잡은 아담한 새 성전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또한 충현교회에서 파송된 하기 놓어준 전도팀의 성령 충만한 봉사의 열심이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므로 더위에 시달림도 잊게 해주었다.

점심 식사 후, 최인근 목사님이 이끄시는 전도대와 우리 한나전도회가 합류하여 축호 전도팀을 짜서 인근 마을로 축호 전도를 나갔다. 그곳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가고 대부분 노인과 병자들이 집을 지키고 계셨다. 집집마다 대문이 열려 있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있었으나, 마음이 완고하고 불교 사상에 젖어 있어 복음 전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그러나 열심히 말씀을 전하

였다. 축호 전도 후 교회에 돌아와 보니 집사님들이 화채와 옥수수를 정성껏 준비해 놓으셨다.

저녁 8시에 동성교회에 시무하시는 김순구 목사님의 사회로 대전도집회가 열렸다. 이사가 30장 21절과 22절을 중심으로 “네 귀에서 들리는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인근 목사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예로 천국과 지옥을 비교해주셨다.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는 은혜스러운 설교였다.

8월 3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오전 6시 30분에 서울을 향해 출발하여 밤 9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현교회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번 방문 기간 중 한상숙 약사님은 약으로 치료하면서 병자들이 나아지며, 약을 가져간 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면서 의료 선교의 중요함과 시급함을 느꼈다고 하신다.

동성교회 담임목사님께서는 교회 부근에 있는 집들이 대부분 듣성듬성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수송해줄 수 있는 봉고차가 필요하며, 목사님과 더불어 사역을 도

와줄 분들과 교사들이 부족하여 매우 안타깝다고 하시며 이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하셨다.

지원하는 교회에 탐방을 가기 전에는 상상에서만 그쳤었는데, 직접 다녀오고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함으로써 동성교회를 위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며 주일이 되면 얼마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궁금해지면서 기도한다.

이번 하기 전도대에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무척이나 심한 무더위 속에서 기쁨으로 열심히 심어 놓은 복음의 씨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님의 위대하신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기도드린다.

더불어 동성교회의 기도 제목인 봉고차 구입과 목사님을 도와 성도들을 이끌어줄 믿음의 협력자들이 준비되기를 능력으로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께 간구한다.

끝으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진행을 주관하시며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린다.

있단 말인가? 내 주변을 돌아보며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다가 마침내 탈출구를 찾았다. 근심, 걱정이 없는 이가 어디 있을까. 성경에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버려야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근심은 장려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보니 언뜻 마음에 짚히는 바가 있다. 이런 가슴앓이는 첫 심방을 하던 3, 4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첫 열심으로 나선 심방 길에서 접하는 성도들의 힘겨운 삶의 내용들이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어떻게든 돕고 싶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이런 마음이 앞설수록 더욱 절실해지는 것은 능력의 한계이다. 병든 육신을 벌떡 일으키고, 깨어진 인간 관계를 고쳐주고, 무기력한 삶에 의욕을 불어 넣어 고무풍선처럼 하늘 높이 띄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뜻대로 안되는 일이지 기도는 더욱 간절해도, 돌아서는 마음은 늘 무겁기만 했다. 당시에는 햇병아리 교역자의 패기와 순수함이 깃든 열정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으나 이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앞질러 달리던 지나치게 어리석고 무모한 열심이었다.

산모가 치루어야 하는 고통은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아니라, 단지 해산의 진통일뿐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영·육간, 생명의 잉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영역에 경외심을 갖고 겸손히 기다리는 인

■ 여전도회 특강

한국의 여성과 교회

강사 : 민경배 목사(연세대 교수)

역사란 우리가 격지 않고도 과거의 일을 내가 겪은 것처럼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교훈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주는 예지를 터득해야 한다. 창세기를 보면, 태초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남자와 어머니와의 관계로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볼 때, 여자는 근본적으로 어머니이다. 따라서 모든 여자는 여성적 속성을 갖기 이전에, 모성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언약을 받은 후 애굽으로 이사를 할 때, 애굽 왕 바로가 사라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였다. 백 세의 사라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여자는 모성적일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중요성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중요성과 폭력이 난무하게 된 원인은 국민들이 여성적인 부드러움, 어머니와 같은 자비로움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모 숭배가 절대적이다. 중세 암흑시대에 야만인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자, 당시 사람들은 부드러운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서보다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으로서 만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5세기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라 하여 숭배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된 1897년에는 교회에 모인 성도 가운데, 남자가 14명, 여자가 1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00년대 초부터는 여자 성도의 수가 남자 성도의 수를 앞지르기 시작하더니,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든지 전체 성도의 삼분의 일은 여자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그리스도인의 수는 천만 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서 여자 성도의 수는 7백에서 8백만 명이다. 우리 나라 전체 인구 4천만 명 가운데 7백만 명이라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이 사회에서 폭력과 증오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은 사라질 것이다.

내를 배우며 마음의 짐을 벗어 놓는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생명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생명을 낳는 값진 수고를 하는 것이다. 올바른 해산의 수고가 오늘과 같은 무관심의 세대에 절실히 요청된다. 연속극을 보면서 극중의 인물의 상황이 안타까워서 가슴을 조리면서 그보다 더 딱한 내 이웃의 현실에는, 관심은 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순이다. 이같은 무관심을 극복하는 길은 예수님처럼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토록 바쁘고 쫓기듯 분주한 일거리와 시간 속에서도 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신 주님은 개인적인 만남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심지어 사람들의 어리석은 질문과 술한 모함과 오해 속에서도 한 번도 대화의 진지함을 잃지 않으셨다.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진지한 사랑의 관심을 갖는 것이다.

겨울이 아직 먼 발치에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이다. 언 마음을 녹이는 것은 따뜻한 마음 뿐이다. 이제는 건성으로 살아온 삶의 언저리를 좀더 찬찬히 살피고 소중한 내 이웃을 진지한 관심으로 돌아보아 훈훈한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할 때이다. 올 가을의 가슴앓이는 보다 진지한 해산의 수고가 되리라 기대해본다.

다음호 세기동은 신표근 강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세기동

마음으로 사는 생활



정기봉 목사

어느새 성큼 다가선 가을을 살고 있다. 이맘때면 내겐 한바탕 치러내야 하는 일이 있다. 벌써 10년 동안 계속되는 일이지만 군에서 얻은 배탈을 매년 빠짐없이 앓고 있다. 가을비에 젖은 몸으로 한 달 이상을 텐트에서 생활하면서부터 시작된 배앓이는 매년 규칙적으로 찾아오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가슴앓이도 한 차례씩 겪고 있다. 작년에는 유난히 심해서 좀처럼 가시지 않던 병원을 찾았다. 종합검진을 마치고 의사가 내린 진단은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마음에서부터 오는 증상같단다. 그리고 마음을 편히 가지는 길밖에는 달리 처방이 없다는 것이다.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병원을 나서면서 마음 한 구석에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스쳐지나간다. 아니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마음에 병이 다 생기도록 근심을 끼고 살았을까? 도대체 내게 무슨 걱정거리가

살롬경로대학 대학부 임진각에서 야외학습 신명기에 관한 세미나

우리 교회 살롬경로대학의 학생 250명은 지난 9월 27일에 임진각으로 야외 학습을 다녀왔다.

20여 명의 교사들도 함께 간 학생들은 임진각에서 휴전선 너머의 북녘땅을 바라보며 야외 예배를 드렸다. 또한 전시장을 견학하고 통일 동산(금촌)에도 다녀왔다.

학생들은 이번 야외 학습을 하면서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하루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학부는 지난 9월 22일 토요일 집회 시간에 요즘 조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신명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조별 공부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의견이 분분했던 '토지 문제', '노사 관계', '십일조와 구제', '음식에 관한 규정' 등을 성경과 적용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이 세미나는 구약 시대의 율법을 현대 우리 생활에 적용해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새벽 이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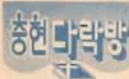
오 지 혜 (초등 3부)

이 넓은 대지 위에
믿음의 빛이 있다.
창문 너머 조용히 비치는 그 빛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

이 어두운 대지 위에
소망의 빛이 있다.
언덕 너머 환하게 비치는 그 빛
나의 입술을 열어주었다.

이 어지러운 대지 위에
사랑의 빛이 있다.
교회에서 따스하게 비치는 그 빛
나의 몸을 감싸주었다.

나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준 그 빛
나의 몸을 감싸준 그 빛은
교회 종소리와 함께 울리는
찬양이었다.



10월 5일분

특별공과 제 사

성경 : 고전 10:23~33

요절 :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4)

찬송 : 30, 34

서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제사 문제, 제물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조상에게 절을 하고, 죽은 조상을 향하여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인지, 그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 한번 교회의 방향을 설정해보십시오.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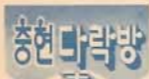
조상 숭배, 제사 제도는 우리 민족 고유의 것이 아니며 그것은 비로 우상 숭배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제사 제도는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국의 추후라고 하는 사람이 유교 철학을 만든 후에 우리가 오늘날 부르고 있는 소위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 성리학(신유교주의)에 의해 추후로부터 제사 제도가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교문화권에서

부모에게 특별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모든 백성이 행하던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훌륭한 업적을 남긴 몇몇의 황제에게만 제사를 지내도록 했으며 그 이유는 그 업적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습이 일반 평민에게까지 번져서 "우리 부모(조상)도 황제와 같이 큰 업적을 남겼노라"면서 조상의 훌륭한(사실상 자기 가문 자랑)을 자랑하기 위해 너도 나도 다투어 제사를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 시대나 고려 말기까지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13세기 말, 다시 말해서 고려말에 정몽주, 이색과 같은 사람이 사당을 짓고 중국의 성리학을 받아들인면서 황제들에게 지내던 것이 일반 평민까지 자기 조상과 가문 자랑을 위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 고유의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제사는 변질되기까지 해서 철저히 후손의 안녕과 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론

1. 우리의 예배 대상은 살아 계신 하나님 외에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제1계명, 제2계명을 읽어보십시오.
2. 제사 제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 아니며 유교 도덕이 만들어낸 기복 사상의 전수입니다.
3. 사후 인간의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택하신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파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제사 문제에 대한 주간총현 제82호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할 것)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월 12일분

제 40 과 둘째 기원

성경 : 마 6:9~13

요절 :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

찬송 : 34, 50

제 102 문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 즉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통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설 명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왕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나라,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 영혼에 육체를 떠날 때 우리가 거하는 영광스런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을 미래적인 개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개념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2.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3.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인 왕국을 말합니다(롬 14:17).
4. 하나님의 나라는 무항적인 것입니다(눅 17:20).
5.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질 문

1.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다스림)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하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서민답게 우리의 삶을 계획합시다.